

Current Status of Sports Industry Startup Activation Program

스포츠산업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현황

Seo Jung Yu¹, Moon Hyun Jung²

유서정¹, 정문현²

¹ Ph.D. Student, Department of Sports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ysj20093427@gmail.com

² Professor, Department of Sports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Jmhyun520@cnu.ac.kr

Corresponding author: Moon Hyun J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and current status to revitalize the support project based on the perception analysis of sports start-up childcare companies in the government's sports industry Changwon support projec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qualitative questionnaire received by requesting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Corporation to disclose information was used as analysis data. The produced questionnaire included "what I wanted to improve, upgrade, and strengthen through start-up childcare," "what I was disappointed about at the time of start-up childcare," "must-have support for start-up childcare," "whether to continue business after completion of start-up childcare," and "what I wanted to improve, upgrade, and strengthen through start-up care."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largest number of respondents had the purpose of securing funds for start-up childcare. This is the result of securing funds a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for prospective early entrepreneurs when participating in the sports start-up support system. Second, the response rate to core manpower, fund, and sales was high in response to the disappointing points during start-up childcare, and there were no programs to secure manpower due to the limitations of early companies, and restrictions on where to use labor costs, small amount of support, support, and education. Third, the ratio of securing funds (27.1%) was the highest when asked what essential factors were when supporting start-up childcare, followed by market sales and development (16.2%),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13.7%), and core manpower acquisition and supply (12.5%). This was found to require help in establishing an initial business by establishing a business model and upgrading strategies that can be used by actual start-ups.

Keywords: Sports Industry, Sport Start-up, A Fact-finding Survey, Activ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스포츠창업보육 수료 기업의 인식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스포츠산업 창업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2021년 스포츠산업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실태조사' 자료를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하여 회신받은 정성적 설문 문항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생산된 설문 문항은 '창업보육을 통해 개선·고도화·강화

Received: February 27, 2023; 1st Review Result: April 14, 2023; 2nd Review Result: May 11, 2023
Accepted: May 31, 2023

하고 싶었던 점’, ‘창업보육 당시 실제 도움이 되었던 점’, ‘창업보육 당시 아쉬웠던 점’, ‘창업보육 시 필수 지원사항’, ‘창업보육 수료 후 사업 지속 여부’, ‘사업 현황(매출, 고용, 폐업 여부 등)’이 존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창업보육을 통해 개선·고도화·강화하고 싶었던 점’, ‘창업보육 당시 실제 도움이 되었던 점’, ‘창업보육 당시 아쉬웠던 점’, ‘창업보육 시 필수 지원사항’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첫째, 자금확보를 창업 보육 목적으로 갖고 있는 응답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 초기창업가들이 스포츠 창업 지원 제도에 참여 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금확보라는 것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창업보육 당시 아쉬웠던 점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도 핵심인력 확보’, ‘자금 확보’, ‘판로 확보’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초기 기업이라는 한계점으로 인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인력 확보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음, 인건비 등 활용처에 제한, 지원 금액 적음, 지원 및 교육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창업보육을 지원할 때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응답으로 자금확보(27.1%)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시장 판로 및 개척(16.2%), 사업화 역량(13.7%), 핵심인력 확보 및 수급(12.5%)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실제 창업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업 모델 구축 및 전략 고도화를 통해 초기 사업 구축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스포츠산업, 스포츠창업, 지원사업, 실태조사, 활성화

1. 서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연구원이 함께 분석한 ‘스포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에 내용에 따르면 스포츠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분야로 높은 경제 파급효과를 내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 스포츠산업으로 인한 생산유발계수는 2.06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1.79 보다 높았으며, 취업 유발효과도 15.25로 전체 산업 평균(10.1)을 멀리 따돌렸고, 고용유발 효과도 11.24로 전체 산업 평균(7.4)보다 높았다[2]. 스포츠산업 중에서도 스포츠 창업은 새로운 시장의 창출로써 개인의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창업을 추진하거나 기존의 기술 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스포츠산업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3].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 사업체의 추정 개수는 2019년 기준 10만 5,445개로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전년 대비 2,300(2.2%)개 늘어난 105,445개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 80조 6,840억 원 중 영업이익은 6조 9,490억 원으로 8.6%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다[4]. 정부는 2023년까지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이 95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스포츠 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R&D 및 창업지원센터 확대, 스포츠산업융자 지원 개선, 스포츠산업 펀드 대폭 확충, 스포츠 기업 비즈니스 지원 확대,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전담팀 구성 등을 추진했다[5]. 이러한 정부의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 투자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6]. 그러나, 스포츠 창업 지원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스포츠 창업기업들의 생존율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창업 5년 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산업 창업기업의 5년 차

폐업률은 80.2%로 나타났다[7]. 이는 100개의 창업기업 중 80개의 창업기업이 5년 이내에 폐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스포츠 창업기업의 폐업률은 전 분야 중 2번째로 높았으며, 그 수치 또한 OECD 주요국 평균인 58.3%보다 20%p 이상 높았다[8].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산업 창업기업의 폐업 현황은 현재 수행되고 있는 스포츠산업 분야의 창업제도가 창업준비와 창업 초기에만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창업 이후에는 기업체들에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예비 창업가 또는 초기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 역량 성장을 위한 연구[9-11]가 진행되었고 정부의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긴 하였으나, 이는 초기 창업 지원 사업의 성과 지표를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정도였고, 정부의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안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 또는 스포츠산업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12]과 [13]는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데, 창업 지원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형식적 자금지원과 방향성 없는 창업 교육이 대부분이고, 정부 주도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실제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스포츠창업보육수료 기업의 인식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스포츠산업 창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1.1 스포츠 창업지원 사업

스포츠 산업 창업 지원사업에 대해 탐색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창업(創業)이란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것’,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14]. 또한, 스포츠 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스포츠 창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면 창업 지원 제도란 정부가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재정이거나 지자체 및 기타 다른 방법으로 조성된 기금, 혹은 자금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혹은 개인 창업예정자 등에게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도(制度)는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형식이지만 불완전하거나 불안정한 인간이 안전하고 보장된 삶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 스포츠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자의 독립성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창업 지원제도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각자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위한 장치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다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사업의 속성에 내용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사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스포츠산업 지원사업의 개요 및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17]. 첫째, 스포츠산업 지원사업 기본계획 조정, 승인 등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총괄기관’이라한다. 둘째, 총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총괄기관의 업무 세부 사항을 직접 수행 또는 운영 기관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칭한다. 셋째, 전담기관의 창업기업

지원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직접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기관을 ‘운영기관’이라 하며, 세부적으로 예비 초기창업지원센터, 액셀러레이터, 창업도약센터로 구분된다. 운영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통하여 운영되는 보조금 사업자를 의미한다. 다음에서는 운영기관으로 분류되는 예비 초기창업지원센터, 액셀러레이터, 창업도약센터의 기능에 대해 간략히 개괄하고자 한다. 예비 초기창업지원센터란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하여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 변화에 경쟁력을 갖춘 창업기업 육성 및 스포츠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관 등을 말한다. 액셀러레이터란 스포츠 산업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연계형 전문보육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산업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액셀러레이터를 말한다. 창업보육센터란 창업도약기(3~7년)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여 스케일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18]. 이와 같은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추어 사업화 한 것을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스포츠산업 액셀러레이터’라 한다. 스포츠 창업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은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사업 내용

[Table 1] Response Status of Sports Industry Startup Incubation Survey

구분	스포츠창업지원센터	스포츠산업엑셀레이터
지원내용	창업교육과 창업보육(시제품 제작, 마케팅 멘토링) 지원	창업자 역량 함양 교육, 멘토링, 사업화, 투자유치 지원등 투자연계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후속지원 7년 미만)	5년 미만 창업자
사업지원금액	평균 300만원	평균 350만원

자료: 2020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수정인용.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년 기업을 대상으로 스포츠산업 창업보육교육을 하고 있는데 본 조사는 이 기업 중 2018년~2021년 동안 보육교육을 수료한 255개사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총 292개사 중 중복 수료기업 37개사의 중복은 제거되었다. 이 조사는 모집단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수조사하였으며, 101개 기업의 설문 결과가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스포츠산업 창업보육 실태조사의 응답 현황은 [표 2]과 같다.

[표 2] 스포츠산업 창업보육 실태조사 응답 현황

[Table 2] Response Status of Sports Industry Startup Incubation Survey

구분	기업 수	회신	미제출
2018년	60	24	36
2019년	86	20	66
2020년	109	57	52
총계	255	101	154

2.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2021년 스포츠산업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하여 분석한 것으로 이메일로 회신받은 정성적 설문 문항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보육을 수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통해 스포츠산업 발전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2021년 스포츠산업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실태조사’의 정성적 설문 문항은 다중 응답 군 방법 중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에 활용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제도의 방식 중 어떠한 지원방식이 효과가 있었고, 미흡하였는지 등이었다.

2.3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축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설문 문항은 정성적 형태로 다중 응답 군 방법 중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회신받은 원자료에서 하나의 설문 문항에 복수로 답한 다중 응답 군을 엑셀을 통해 0과1로 이분화하여 코딩한 것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3. 스포츠 창업 지원제도의 인식분석

3.1 창업보육교육 참가 목적

[표 3]는 창업보육 교육 참가 목적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창업보육 교육 참가 목적은 자금확보(23.3%)가 가장 큰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사업모델 및 전략(12.3%), 정보·네트워크확보(11.2%)이었으며, 사업화역량(19.1%)과 시장 및 판로개척(19.1%)에도 목적이 있었으나, 기술역량(7.2%)이나 핵심인력확보/수급(7.2%) 등은 교육참가목적으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예비창업가들에게 창업 초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자금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정부의 창업지원금 규모 보다 창업지원사업 수혜자의 가용 금액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산업 예비창업가와 지원금 교부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적절한 절충이 필요하다[19].

[표 3] 창업보육교육 참가 목적

[Table 3] Purpose of Participation in Business Incubation Education

창업보육 참가의 목적	응답		케이스의 %
	N	%	
자금 확보	66	23.8	65.3%
사업화 역량	53	19.1	52.5%
시장 및 판로개척	53	19.1	52.5%
사업모델 및 전략	34	12.3	33.7%
정보/네트워크확보	31	11.2	30.7%
기술역량	20	7.2	19.8%
핵심인력확보/수급	20	7.2	19.8%
총 계	277	100.0	274.3%

3.2 창업보육 간 아쉬운 점

[표 4] 창업보육 간 아쉬운 점

[Table 4] Disappointment of Entrepreneurship Incubation

창업보육의 아쉬운 점	응답		케이스의 %
	N	%	
자금확보	22	15.1	21.8
사업화 역량	4	2.7	4.0
시장 및 판로개척	16	11.0	15.8
사업 모델 및 전략	3	2.1	3.0
정보 및 네트워크확보	8	5.5	7.9
기술역량	13	8.9	12.9
핵심 인력 확보 및 수급	40	27.4	39.6
기타	9	6.2	8.9
없음	31	21.2	30.7
총계	146	100.0	144.6

[표 4]는 창업보육 간 아쉬운 점을 나타낸 것으로 응답 결과 핵심인력확보 및 수급(27.4%)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자금확보(15.1%), 시장 및 판로개척(11.0%)이 아쉬운 점으로 집계되었다. 주목할만한 점으로는 전체의 약 21.2%의 응답자가 아쉬운 점이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3 창업 보육 시 필수지원 요소

[표 5]는 창업보육을 지원할 때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응답으로

자금확보(27.1%)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판로 및 개척(16.2%), 사업화 역량(13.7%), 핵심인력 확보 및 수급(12.5%)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실제 창업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업모델 구축 및 전략 고도화를 통해 초기 사업 구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창업 보육 시 초기 창업가들의 창업 아이템에 대한 정보 및 유사 창업 아이템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표 5] 창업 보육 시 필수지원 요소

[Table 5] Essential Support Elements for Business Incubation

창업 보육 시 필수지원 요소	응답		케이스의 %
	N	%	
자금확보	89	27.1	88.1
사업화 역량	45	13.7	44.6
판로 개척	53	16.2	52.5
사업모델 및 전략	36	11.0	35.6
정보 및 네트워크 확보	40	12.2	39.6
기술역량	22	6.7	21.8
핵심 인력 확보 및 수급	41	12.5	40.6
기타	2	0.6	2.0
총계	328	100.0	324.8

3.4 창업 보육 시 애로사항

[표 6] 창업보육 애로사항

[Table 6] Business Incubation Difficulties

창업보육의 애로사항	응답		케이스의 %
	N	%	
자금 부족	81	36.3	83.5
채널 및 판로확보 어려움	43	19.3	44.3
전문인력 부족	56	25.1	57.7
사업화 역량 부족	17	7.6	17.5
각종 정보 부족	14	6.3	14.4
기술력 부족	12	5.4	12.4
총계	223	100.0	229.9

[표 6]은 창업보육 애로사항에서는 자금 부족, 전문인력 부족, 채널 및 판로확보 어려움 등의 순서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집계는 창업보육의 목적이 자금 부족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으며, 그 금액이 한정적이라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창업 보육 후 실질적인 기업 운영 시 전문인력 확보에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금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스포츠 창업지원제도 수혜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자금 충당 비용 리스트를 파악하여 정부의 자금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3.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창업 지원 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스포츠 창업 지원제도 수혜자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문제점 도출을 통해 향후 스포츠 창업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성과 지표에 대한 문제점만을 가지고 발전방안을 제안했던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스포츠 창업 지원사업 수혜 기업의 향후 경영 방향성을 찾아가기 위해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21년 스포츠산업 창업보육 수료기업 실태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구성된 정성적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설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고, 설문 문항은 정성적 형태로 다중 응답 군 방법 중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스포츠 창업 지원 제도의 인식분석에 관한 문항은 ‘창업보육을 통해 개선·고도화·강화하고 싶었던 점’, ‘창업보육 당시 실제 도움이 되었던 점’, ‘창업보육 당시 아쉬웠던 점’, ‘창업보육 시 필수 지원사항’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스포츠 창업 지원사업 수혜 기업의 인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창업 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폐업 및 휴업 기업들이 겪는 고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21년 스포츠산업 창업보육 수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유지 기업 227개사 중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101개사, 폐업 및 휴업 기업은 28개사 중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단 5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폐업 및 휴업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폐업 및 휴업 기업의 고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후속 지원과 관련한 성과 평가 및 적극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보다 나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창업보육 수혜자들의 실질적인 자금확보를 위해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금 활용처 범위를 늘려 유동성을 확보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환가치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 창업보육 당시 아쉬웠던 점을 응답한 결과에서도 핵심인력 확보, ‘자금 확보’, ‘판로 확보’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초기 기업이라는 한계점으로 인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인력 확보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음, 인건비 등 활용처에 제한, 지원 금액 적음, 지원 및 교육이 없음에 대한 한계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셋째, 인력수급 및 인력 제공과 관련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창업 보육 시 응답자 전반에 자금확보가 도움이 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가용 자금이 제한적이고 또한, 그로 인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창업 시 인력수급이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홍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스포츠 창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정책 예산 확보를 위해 3년 미만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필수 가용 자금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력 제공과 관련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창업 교육 정책 예산을 확충하여 스포츠 관련 전공자들을 위한 창업 교육 기회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성장 침체로 ‘시드머니’를 확보할 수 있는 자금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이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스포츠산업 전체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5.5%였으며, 동일 기간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률이 2%대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빠른 성장추세에 있었다. 2019년 기준 전체 스포츠산업의 매출액은 80조 6,840억 원이었고, 사업체 수는 105,445개, 종사자 수는 449,200명이었다. 대분류 업종별로 보면 스포츠시설업이 13.3조 원에 연평균 성장률 6.4%를 기록하였다[20]. 그러나, 국내 스포츠산업의 높은 경제효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스포츠산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기업의 운영 중단, 매출액 감소에 따른 고용 감소 등의 피해로 기업의 불안정한 경영난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시설 이용의 감소가 53.47%, 운영 중단으로 인한 이용 감소가 41.30%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성장 침체로 스포츠산업의 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코로나 19로 인한 스포츠 창업 지원제도에 대한 자금력 확대, 융자, 펀드 투자 등 스포츠 창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정책 예산 확보를 늘릴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A Study on the Economic Contribution Analysis of Sports Industry Press Releas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Culture, (2022)
Available from: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337
- [2]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8034500007>, Jan 18 (2022)
- [3] Choi Jong Pil, The Results, Development Assignment of Supporting Project of Government Policy to Sport Industry Start-Up, Journal of Korea Sports Industry Management, (2017), Vol.22, No.3, pp.21-34.
DOI: <http://dx.doi.org/10.31308/KSSM.22.3.2>
- [4] Sung mun jung, A Study on the Enactment of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Sports Science Research Institute, (2004), Vol.11, No.4, 275-298.
DOI: <http://dx.doi.org/10.19051/kasel.2008.11.4.275>
- [5]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06052>, Sept 20 (2022)
- [6] The 3rd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of the Sports Industry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Culture, (2019b)
Available from: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073
- [7] Yoon Geo il, Yang Eun hee, I dream of starting a business with sports, National Daily Media, (2018)
Available from: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152851>
- [8]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1030000003>, Mar 01 (2021)
- [9] Kim Yoon he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nder of a Sports Company 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Satisfaction Discretion and Oper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Sports Association, (2021), Vol.19, No.3, pp.117-125.
DOI: <http://dx.doi.org/10.46669/kss.2021.19.3.011>
- [10] Jung Myung seop, Kim Jae ho,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Sports Start-up in Taekkyeon, a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017), Vol.3, No.4, pp.153-158.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17.3.4.153>
- [11] Jung Myung seop, Kim Jae ho,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Sports Start-up in Taekkyeon, a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017), Vol.3, No.4, pp.153-158.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17.3.4.153>
- [12] Jeong Yoon deok, Deriving the Key Success Factors of Sports Start-up Using Delta Pi Technique, Journal of Korea

Sports Industry Management, (2022), Vol.27, No.1, pp.15-30.
DOI: <http://dx.doi.org/10.31308/KSSM.27.1.15>

- [13] Jeon In Oh, Established business start - up support Impact on The youth of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2), Vol.10, No.11, pp.103-114.
DOI: <http://dx.doi.org/10.14400/JDPM.2012.10.11.103>
- [14] Jeong Yoon deok, Deriving the Key Success Factors of Sports Start-up Using Delta Pi Technique, Journal of Korea Sports Industry Management, (2022), Vol.27, No.1, pp.15-30.
DOI: <http://dx.doi.org/10.31308/KSSM.27.1.15>
- [15] <https://namu.wiki/w/%EC%B0%BD%EC%97%85>, Feb 27 (2023)
- [16]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180687#>, Feb 03 (2016)
- [17] National Legal Aid Center,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Support Act, (2020)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C%86%8C%EA%B8%B0%EC%97%85%EC%B0%BD%EC%97%85%EC%A7%80%EC%9B%90%EB%B2%95/\(16524\)](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C%86%8C%EA%B8%B0%EC%97%85%EC%B0%BD%EC%97%85%EC%A7%80%EC%9B%90%EB%B2%95/(16524))
- [18]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perational standards for business start-up support projects in the sports industry, (2021)
- [19] Park Jaehwan, Park Myungsoo, Kim Daeyeop, Youth from the perspective of Start-up Policy and Start-up Ecosystem Measures to Revitalize Entrepreneurship, Korean Society for Management Education, (2012), Vol.27, No.5, pp.1-30.
UCI: G704-001274.2012.27.5.018
- [20]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06052>, Sept 20 (2022)
- [21] Shin Sungyeon, Yang Jaeho, Consumption Behavior Changes and Future Prospects for Sports Services and Product Purchases in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2022), Vol.53, No.1, pp.1-38.
DOI: <http://dx.doi.org/10.15723/jcps.53.1.202204.1>